

日本の 大學教養佛語教育의 實態에 관한 考察*

高 元 禧

目 次

- | | |
|---------------------------------------|-----------------------------------|
| I. 序 論 | V. 日本의 大學外國語教育의 改革動向 |
| II. 日本의 外國語教育政策 | VI. 東京大學 教養學部の 第二外國語(불어중심) 教育의 現況 |
| III. 日本의 大學教養外國語教育의 目標와 方向 | VII. 筑波大學 外國어센터의 活動現況 |
| IV. 日本의 外國語擔當教授의 動態와 外國語(불어중심) 教育의 現況 | VIII. 結 論 |

I. 序 論

10여년간 大學에서 教養佛語講座를 담당해 온 筆者는 그 간에 大學教養佛語의 教授方法과 方向을 改善시킬 必要性을 느껴왔다. 그것은 各 大學의 教養外國語의 教育方法은 현재까지 전통적인 教授法인 文法과 獨해력 위주의 教育방법을 채택하여 실행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의 교양제2외국어 교육현황은 현실적인 상황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점진적으로 그 대책을 위한 개선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선진외국의 대학제2외국어 교육의 실태와 효율성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교양제2외국어 교육이 처한 결함과 개선점을 모색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되었다. '82년도 海外研修次 渡日하여 筑波大學과 東京大學 教養學部를 직접 견학하는 기회가 주어져 兩大學의 교양제2외국어 교육의 실태를 살필 수 있게 됨으로써 필자의 벼름이 어느정도 달성된 것이다. 日本의 大學교양외국어(불어) 교육의 실태를 살핌에 있어, ①教科履修現況, ②語學教室現況, ③佛語담당 教員數의 現況, ④佛語教材의 現況, ⑤最新시청각교육기재 현황, ⑥외국어센터의 活動現況 등에 重點을 뒀다. 本稿는 上記 大學의 교양제2외국어(불어) 교육의 실태를 근거로 하여 日本의 대학교양불어 교육의 目標와 方向을 고찰하고 끝으로 한국의 대학교양불어 교육과 비교해 매듭짓고자 한다.

* 이 論文은 1982年度 文敎部 學術研究 造成費에 依해 研究되었음.

II. 日本의 外國語教育政策

1970年 5월에 제출된 中央教育審議會答申『高等教育의 改革에 관한 基本構想』은 高等教育機關의 目的과 性格에 따라서 第一種에서 第五種까지 種別化 및 多樣化할 것을 제시했다. 第一種은 現行 大學에 해당되나 그것을 A類型(장차 公務·産業·文化·家族生活 등 폭넓은 實踐生活에 종사하는 畝의 養成), B類型(基礎적인 學術이나 專門技術을 살리는 職業에 進出하는 者를 對象), C類型(敎員·海技職員·藝術家·體育專門家を 養成)의 三類型으로 區分하고 있다. 第二種은 現行 短期大學, 第三種은 現行 高等專門學校에 해당된다. 또한 第四種은 現行 大學院修士課程의 水準에 해당되는 教育을 실시하고 있으나, 再教育을 要請하는 一般社會人에게 폭넓게 開放시키고 있다. 第五種은 現行 大學院博士課程에 해당된다는 骨子로 되어 있다. 다만 保健體育과 外國語의 경우는 극히 具體적인 改善의 方向을 指示하고 있다. 保健體育敎科目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外國語 教育에 관한 『基本構想』의 提言은 다음과 같다. “外國語 教育은 특히 國際交流上 活用能力의 育成에 努力해야 할 뿐만 아니라 必要에 따라서 學內에 設置된 語學研修施設에 의해서 實施하고 그 結果에 대한 能力의 檢定을 施行한다.”

上記 本文에 日本文部省은 다음과 같은 說明을 부가시키고 있다. “外國語 教育은 그 學習을 통해서 外國의 文化에 접하고 그에 대한 理解를 深化시키는 目的을 지니고 있으나, 지금까지 意思疎通을 원활히 행사하지 못한 能力의 育成에 결함점이 많았다. 더구나 장차 日本이 國際적인 交流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國際社會의 發展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重點을 두고 충실을 기할 必要性이 있다.” 그런데 日本文部省이 外國語 教育의 問題에 대해서 얼마나 重大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基本構想』이 提言된 4年後인 1974年 5월에 提出된 中央教育審議會 答申中 『教育·學術·文化에 있어서의 國際交流』에서 明白하게 밝히고 있다. 이 答申文에는 『外國語 教育의 改善』이라고 하는 項目이 있으며, 『基本構想』에 제시된 改善의 方向을 再次 具體적이고 現實적으로 전개시키고 있다. 그 項目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國民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의 外國語 能力은 一般的으로 보아서 극히 빈약하다. 그것은 國際交流上 活動을 童進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外國語 能力의 向上을 도모하는 것은 앞으로 國際交流 推進을 위해서 극히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1) 中學校·高等學校에 있어서의 教育

2) 高等教育機關에 있어서도 外國語 能力의 向上을 도모하기 위해, 一般教育으로서의 外國語 教育 自體에 대한 檢討

3) 優秀한 外國人을 採用하고 外國語 教育에 있어서 活用할 수 있는 實態를 加一層 추진한다.

4) 外國語 敎員의 지도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語學研修를 위한 海外留學에 대해서 積極적인 시책을 강구한다.

또한 答申本文에는 答申첨부서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項目이 제시되고 있다.

5) 高等教育機關에 있어서의 語學教育의 改善을 도모하기 위해 語學教育研究의 組織에 대한 정

비, 語學擔當敎員의 海外派遣, 外人講師의 積極적인 채용, 敎育機材의 정비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語學 能力의 認定試驗制度를 도입하는 對策에 대해서도 檢討한다. 이와 같이 日本文部省의 外國語敎育의 改善方針에 立脚하여 1974년에 名古屋大學, 筑波大學 등을 시발점으로 하여 東京大學 敎養學部, 北海道大學 등에 잇달아 設置된 外國語敎育센터는 “基本構想”에 明示되어 있는 “必要에 따라서 學內에 設置된 語學研修施設”, 또한 ‘國際交流’라는 語學敎育研究의 組織에 대한 정비의 具現化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外國語敎育센터는 그 內部에 테이프·레코드는 물론 VTR, OHP, 아나라이자, 마이콘組込, 調整卓 등 最新式 視聽覺機材를 갖춘 LL敎室과 敎材自作用의 스타지오를 配置하고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外國語敎育센터의 기본구상의 實態를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時代的인 狀況과 社會的인 要請에 부응하기 위해 實用主義的인 外國語敎育에 대한 方案이 多角的인 側面에서 추진되고 있는 추세를 고찰해 볼 수가 있다.

Ⅲ. 日本의 大學敎養外國語敎育의 目標와 方向

日本人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外國語能力이 아직도 빈약한 實情이다. 그것은 國際交流에 있어서 커다란 障害가 되고 있다는 現實 狀況의 認識에 立脚하여 國際交流의 場에 있어서의 活用能力의 育成을 培養시켜야 할 問題點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현재 日本의 外國語擔當敎員들은 技術中心의 實用主義的 外國語敎育觀이 결핍되어 있다는 批判을 받고 있다. 그러나 大學社會에 있어서 敎養主義를 신봉하고 있는 外國語擔當敎員 등이 見解는 무엇보다 먼저 言語의 本質論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敎養主義的 外國語敎育觀을 考察해 본 筆者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한 나라의 言語와 文化, 그리고 그 言語를 사용하고 있는 民族의 思考나 心性, 그리고 感性이란 불가분의 關係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外國語를 습득한다는 것은 그 言語를 통해서 自國의 文化와는 異質的인 外國의 文化와 民族性의 本質에 접하여 그 認識을 심화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또한 外國語를 습득함으로써 言語 그 自體, 人間과 言語와의 연관을 이해함과 동시에 外國語의 形態와 構造, 그리고 機能 등의 比較에 의해서 自國語 및 自國語的 思考方式에 대한 省察을 깊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채로운 내용의 外國어 텍스트의 讀解를 통해서 온유하고 치밀한 思考力과 풍부하고 예민한 感受性을 도야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外國語敎育이야말로 一般敎養敎育科目 중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이며 아울러 全人格敎育과 人間改革에 關係되는 敎育으로서의 外國語敎育은 다만, 活用能力의 育成만으로는 敎養外國語敎育의 目標를 達成할 수 없다는 것이 순수한 敎養主義를 신봉하는 外國語擔當敎員들의 主張인 것이다. 日本에 있어서의 現行 外國語敎育은 戰前에 시행해 왔던 敎養主義的 敎育이 현재 實用 本位의 功利主義인 傾向에 밀리어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견해가 의견중 前提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적어도 制度的으로는 日本의 大學外國語敎育은 明治時代 이래 철저한 實用主義 및 功利主義이었다. 그 증거로 1895년(明治 28年) 당시 文部大臣 西園寺 公望은 外國語敎育政策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言及한 것을 들 수 있다.

“日本をして、世界の文明國中に地位を列舉しぬんとせげ、日本人は西洋の言語文章を知らざるべからず……平時に於て商業上及び工業上の戰爭は、常に絶るにとあらざるべし……

…此等の戰爭に従事する兵士に取りて、最も必要なる利益は、敵國の言語文章を通じて、以て敵の狀勢を知るに在り……然るに英語の如きは、我が國民の多數が成子べくえを知らんことは、望ましき所なり”¹⁾ 明治維新 이래 世界文物을 수용하려는 시대적인 요청에 입각해서 고찰해 볼 때 그 당시의 爲政者의 側面에서 上記 外國語 教育의 目標은 타당성있는 主張이었을지도 모른다. 中央教育審議會에서 제시하고 있는 國際交流의 場에서의 活用能力은 明治의 元老들의 見解로 대치해 보면 商業上 및 工業上의 戰爭에 승리하기 위한 利器라고 바꾸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런데 日本의 大學外國語教育에 있어서 教養主義가 實用主義와 대치되어 緊要하게 옹호되어 온 以上 教養主義라는 實體와 그 實態는 어떠한 것이며 또한 教養主義가 以前의 實態 그 自體를 오늘날까지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日本의 大學外國語教育에 教養主義가 存在할 수 있었다는 것은 國家의 當面한 要求에 따르는 實用主義에 바탕을 둔 制度的인 테두리 속에서 서구문화를 흡수하려고 努力했기 때문이다. 富國強兵과 忠君愛國의 絶對主義의 天皇制下에서 제한을 받으면서도 서구의 哲學, 文學, 音樂, 繪畫 등이 꾸준히 소개되고 애호를 받아 同化될 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日本에 있어서 佛語 및 불란서 文化의 受容 自體가 그것을 立證하고 있다고 본다. 日本社會에 있어서 불어의 위치는 自由와 民權思想의 도입을 강력 阻止하려는 政治的 理由와 商業 및 工業上의 發展을 피하기 위한 功利主義의 思考方式에서 舊制高校와 大學에서 경시된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戰前에 있어서도 프랑스 文化의 影響이 日本 近代文化의 形成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構成 要因이 된 것은 당시 社會交流에 따르지 않는 知識人들의 끊임없는 努力의 結果였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日本의 大學에 있어서의 教養主義의 傳統이 人文社會科學分野 및 藝術 分野에 미친 影響은 오늘날 日本의 文化 水準을 高揚시킨 토대가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西歐의 教養의 受容者인 舊制高校生 및 大學生들은 國隣 全體面에서 볼 때 少數의 特權階級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社會의 指導層으로서의 장래가 약속되고 있었다.

外國語 教育을 통해서 풍부한 教養과 柔軟한 知性的 涵養은 國家의 當面의 要求에 따라서 相對的으로 少數의 엘리트만이 필요한 것으로서 요구되며 허용되었던 것이다. 外國語 文獻의 독해력과 거기에서 얻어진 教養이라는 것은 自己와 他의 區別 그리고 自己의 知性和 感性的 洗練을 顯在化하는데 있었다. 그 증거로 엘리트 밑에서 오로지 同역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實務家 養成의 必要에 응하는 機關으로서의 外國語 專門學校가 高等工業學校 및 高等商業學校와 並行해서 존재했던 것으로 본다.²⁾

- 1) 泉敏夫, 「近代日本の高等教育における外國語教育の問題について」 關西大學 一般教育研究センター報, 1981. 泉教授는 同論文에서 明治期에 있어서 영어, 독일, 불어의 教育政策이 國家目的과 관련을 맺으며 어떻게 推移되어 왔던가를 批判的 觀點에서 상세히 추구하고 있다.

- 2) 1935년에 있어서 高等教育機關의 入學者數를 보면 아래와 같다.

(清水義弘: 「試験」 岩波新書, p. 7. 1957)

大學	26,156	高等學校	4,648
專門學校	29,184	高等師範學校	749
實業專門學校	9,359		

이와 같이 教養主義的 外國語 教育이 이전의 形態로서 오늘날 존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舊教育 制度와 現行教育制度下의 學生數는 단순히 比較해 보아도 가히 알 수가 있다. 敗戰 직전의 1944년과 1980년의 학생수를 비교해 보면, 舊制高校와 大學의 學生數의 合計가 약 137,000名이고, 新制四年制大學의 學生數만으로도 12.7배 160萬名을 넘고 있는 현상이다.³⁾ 日本文化의 生態도 일변했다. 시정각기재가 급속히 발달 보급되어 컴퓨터를 中心으로 하는 情報處理技術이 個人生活영역에까지 導入됨으로써 活版印刷術의 發明 이래 500년에 이르는 書籍文化의 優位가 흔들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外國語 教育에 대한 社會的인 要求가 새로운 角度로 제기되었다. 예컨대 中國語의 文章은 訓點을 붙혀 日本語의 文法에 맞게 읽어 내려가는 訓讀은 서적을 통해서 선진문화를 수입하기 위한 日本 先祖들이 창안해 낸 하나의 기술이었다. 이러한 技術은 구미문화를 수입하기 위해서 轉用되었고, 英語를 위시해서 各國 外國語의 教育에 대한 번역 중심의 教育 方法으로서 정착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産業分野 또한 人文, 社會科學은 물론 理學, 工學, 醫學, 農學 등 그 어느 分野에 있어서도 주로 歐美先進國家의 成果에 대한 모방과 흡수가 고작이었다. 外國의 科學技術과 文化의 受容을 위해서 外國語 教育은 번역기술의 습득만으로 充分했다. 1960년도에 이르러 日本은 産業 및 科學技術分野에 있어서 先進國을 따라가는 式의 단계를 탈피하기 위해 事態가 일변했다. 이러한 새로운 단계를 日本經濟의 기적적인 발전이라고 自負하고 있으나, 政治, 經濟 및 社會生活의 國際化의 進陣이 現實化했다. 世界各國에 주재하는 公務員과 民間企業의 社員 및 그 家族 그리고 業務上의 필요로 日本에 주재 또는 내방하는 外國人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대했다. 世界 속에 둘러싸인 交通 및 通信網에 의해서 人間과 情報의 交流가 빈번해지고 距離가 지니는 意味와 機能이 달라졌다. 다시말해서 人文, 社會科學의 영역은 구태의연한 상태이지만 理學 및 工學 分野에서는 輸入 일변도의 시기는 過去之事가 된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日本 文化에 관해서도 外國의 관심이 높아가고 外國人 研究者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日本側에서도 對外紹介의 必要性마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外國의 과학기술과 문화의 수용을 讀解 중심의 外國語 教育에서 相互交流를 위한 教育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政治的이며 이데오로기의인 立場의 相異點을 초월한 歷史的인 必然的인 方向이라고 생각된다. 1969년 1월 東京大學當局은 總長의 자문기관으로서 大學改革準備調査會를 설치했다. 同調査會가 9개월간에 걸친 調査 및 檢討를 거쳐 정한 第一次 報告書는 大學改革의 基本問題, 研究教育組織과 管理組織 또한 總長制度와 學內 規律 등에 대해서 現實的인 狀況을 分析하고 長차 改革 可能性의 方向을 明示하고 있으나 研究教育上의 問題에 관해서 個個의 教科目에 이르기

3) 舊制 및 新制의 學生數

	舊制(1944년)	新制(1980년)
중 학교	622,346	
고등학교	27,405	4,621,936 ¹⁾
대 학	109,293	1,741,496 ²⁾
대 학 원		修士 35,781 博士 18,211

1) 全日制

2) 四年制

舊制에 대해서는 大田堯 編著: 「戰後日本教育史」 岩波書店, 1978년 參照

新制에 대해서는 「朝日年鑑」, 1980년 參照

까지는 論述하고 있지 않다. 다만 體育과 外國語의 두 科目에 관해서는 매우 具體的인 方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外國語 教育의 결함부문을 살펴보자. “大學에 있어서 外國語 教育의 目的은, ……一般敎養의 하나로서 外國의 文化와 社會에 관한 理解를 심화시키고 專門的인 學問의 勉學과 國際的 交流의 수단으로서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能力을 培養시키는 데 있다. ……이에 대해서 東京大學의 敎養課程에서는 이러한 性格의 異質的인 두 종류의 外國語 教育이 막연히 區別없이 行해지고 있으며, 오히려 第二의 目的을 위한 外國語 教育은 빈약한 實情이다.”⁴⁾ 上記 句節은 中央敎育審議會가 제기한 基本構想에 日本 文部省이 첨가한 說明을 비교해 보면 兩者의 論理의 同一性과 結合은 같다고 볼 수가 있다. 요컨대 現行 日本의 大學敎養外國語의 教育方向은 東京大學 改革準備調查會의 第一次 報告書가 1970년에 公표된 中央敎育審議會의 基本構想에 立脚해서 施行하는 實態라고 볼 수 있겠다.

IV. 日本의 外國語擔當敎授의 動態와 外國語(불어중심) 敎育의 現況

日本의 大學敎養課程에서의 外國語 敎育이 學生들의 語學力을 向上시키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지 못한 原因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敎養課程에 있어서 外國語 敎育을 擔當하고 있는 敎授들은 文學 및 文學史등을 專攻하는 研究家가 많다, 본래 外國語 敎育을 專攻하는 者는 드문 실정이다. 그 結果 研究者로서의 關心과 授業擔當間에 하나의 거리감이 생긴다. 따라서 外國語敎育改革에 대한 熱意가 부족하여 최근 日本에서 筑波大學등 몇몇 大學에서 試圖해 본 결과 그 성과를 올리고 있는 새로운 科學的인 外國語 敎育方法을 거의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⁵⁾ 모든 것을 外國語擔當敎授의 資質, 態度 意識의 問題로 還元시키고 制度 및 人的, 物的 條件과 커리큘럼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客觀的 認識에 立脚한 正當한 비판이라고 간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個人的인 體驗이나 印象에서 나오는 發言이나 提案이라고 日本의 外國語擔當敎授들은 主張하고 있다. 따라서 “外國語 敎育은 筑波大學에 한정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는 日本의 어느 大學에서도 하나의 커다란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問題點이 있다고 간주해도 當장 改革한다면 外國語擔當敎授 自身들이 찬성하지 않는다”⁶⁾. 위와 같은 主張을 살펴보면, 아직도 保守的인 敎養外國語 敎育의 實態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現在 日本社會의 요청에 따르는 敎養外國語 敎育의 改革案에 대해서 별로 關心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現行 日本의 大學 第二外國語 敎育의 實態를 具體的인 例를 제시하면서 살펴볼까 한다.

20~50명 규모의 수강생들의 성적 평가를 點檢하면서 착실히 하나의 敎科目과 規律을 가르치며 敎授와 學生間의 人間的 接觸이 가능한 外國語 授業이 正常的인 軌道를 벗어나고 있는 問題點을 제기코자 한다. 筆者가 渡日時 東京大學 敎養學部 正門앞에서 받은 廣告물을 보면 다음과 같다.

4) 東京大學改革準備調查會: 第一次報告書, 1969. 10., p. 127.

5) Ibid., pp. 127-8.

6) 出佳正己, 「筑波大學-問われ續ける(開かれた大學)」 「朝日セーナル」 18號, 1980. 10.

筆者는 上記 廣告물을 받아보고 먼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고 또한 日本의 外國語 教育의 實態와 學生들의 外國語 學習態度를 어느 한 側面에서 評價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 評價에 대한 具體的인 內容을 언급하고자 한다. 오늘날 복사기가 엄청나게 普及되고 강독용으로 편찬된 교재마저 한 학생이 구입하면 다른 학생들은 복사해서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경향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教授가 번역이 없는 혹은 번역서를 구하기 힘든 教材를 선택해서 강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필사적으로 번역서를 찾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구입할 수 없는 경우는 原文은 적혀 놓고 教授가 수업 시간에 번역하는 것을 모조리 筆記해 둔다. 그리고 語學 教室에서 學生들에게 지명하는 教授에 대한 對策은 外國語 實力이 있는 學生 또는 他人에게 부탁해서 事前에 만든 譯文의 복사를 돌리는 경우도 있다. 期末試驗에는 물론 암기한 譯文을 답안지에 옮겨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試驗問題의 前後部分 또는 생략된 部分마저 그대로 번역되어 버리는 웃지 못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授業態度는 外國語 授業의 不條理한 實態를 액면 그리고 反映해 준 좋은 實例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日本의 大學生들이 外國의 言語와 文化의 理解, 그리고 日本語에 대한 인식, 나아가서 思考力과 感性의 단련에 등한시하고 있다는 點이다. 요컨대 이러한 實態는 日本 文部省과 大學當局에서 外國語 教育을 改善코자 하는 이른바 外國語의 活用 能力의 育成을 阻止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1970년 이후 日本의 大學에 있어서 外國語 教育에 대한 改善의 成果가 놀랄만큼 현저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까닭은 우선 外國語擔當教授의 世代交替가 進行되었다. 소위 戰前派에 속하는 教授들은 外國人學者 및 研究者와 學術토론회를 가질 경우 실제 외국어에 대한 聽취력 및 회화 能力의 부족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허다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新制大學 및 大學院에서 이수하고 20대에 수년간 외국에 유학했던 者들이 교편을 잡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學生들 중에도 커뮤니케이션의 道具로서의 外國語에 대한 要求가 높아지고, 또한 그들 自身이 직접 外國人과 접촉하거나 혹은 外國에 短期 또는 長期코스로 유학하는 기회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外國語擔當教授의 對應은 이와 같은 狀況變化에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日本의 大學教養佛語에 대해서 고찰해 보면 佛語教育의 目標과 方向에 대한 의견이 구구한 실정이다. 그 까닭은 한 教授는 4개월 동안에 初級佛語文法을 마치고 갑자기 內容的으로나 語學的으로 난해한 思想論文을 강독하고 있는 反面에 또 다른 教授는 2학년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어떤 方法으로 가르칠 것인가의 사전 협의도 없이 프랑스에서 集中學習용으로 製作된 시청각교재를 산만하게 使用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實例는 適當 3시간을 教授 3명이 相互의 의견이나 조정없이 擔當하며 서로 똑같은 教科書를 사용하고 똑같은 內容의 수업을 週 3時間 反復하고 있다는 사실이 커다란 問題點으로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의 言語學

語學に苦しんでいる人だけ

お読み下さい

いま全国で噂の●●堂が、貴方の日夜夜毎の苦しみを取り除きにやつてまいりました。もう御安心下さい！●●堂では、全国大学で使用されている語学テキスト(英・独・仏・西・中・露語)のほとんど全てを翻訳解説しております。翻訳語テキスト1700種類、大学助教授専任ベテラン翻訳者320名を擁する●●堂は日本で唯一の本格的大学校の専門会社です。読本もの・文法もの・外習語録もの、いずれを問わず、大学のテキストであれば何でも翻訳しております。内容は訳文・単語解説・練習問題解答からなっており非常に便利にできております。

料金は
テキスト本文(組図の部分はいりません)の全ページ数×8円
(例・本文が80ページのテキストなら 80×8=480円) です。
 いずれもパンフレット形式(12cm×17cm)にして、持ち運びが便利なるようにコンパクトに作成しております。申込みをされたい方は右の欄に翻訳御希望のテキスト名を記入の上、小社までお送り下さい。折返し送金方法を御連絡申し上げます。

京都市●●
株式会社●●堂 (TEL ●●●●●●)

쪽인 Pierre M. Groll은 이와 같은 教育實態에 대해서 日本의 大學敎養佛語敎育의 目標과 方法에 대한 根本的인 反省과 外國語의 活用 能力에 대한 再檢討를 지적하고 있다.⁷⁾ 이같은 사실은 外國語에 대한 研究와 敎育의 괴리 현상을 빚고 있는 日本의 大學에 있어서의 外國語敎育의 實態의 一面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V. 日本의 大學 外國語敎育 改革動向

현재 시행하고 있는 日本의 大學外國語敎育의 改革動向을 네가지 側面에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제1외국어主義를 타파해야 한다는 輿論이 提起되고 있다. 日本人의 영어 活用능력은 獨, 佛, 露, 中 등 其他 外國語 能力에 비해서 높은 수준에 오르고 있는 것은 中等敎育課程에서 6년간 그리고 大學의 敎養課程을 합쳐 8년간 全學生이 必須科目으로 이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敎育법에 대한 研究水準이 높은 反面에 佛語를 위시한 其他 外國語의 敎育法에 대해서는 研究水準이 아직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日本社會의 實用主義的인 思考方式에 바탕을 둔 功利主義的인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英語를 重視하는 까닭은 政治的, 經濟的, 이데오르기적인 理由가 있겠으나 日本이 美國의 文化的 植民化를 탈피하고 複合的인 觀點에서 世界와 日本을 批判하기 위해서는 英語 以外的 外國語가 비약적으로 普及할 必要性이 있다는 主張이다.

둘째, 各 外國語에 대해서 必修時間數의 최저의 目的達成을 설정하고 거기에 적합한 敎育計劃 및 敎育體制를 創案해야 한다는 見解이다. 또한 그와 동시에 學生들의 能力을 伸長시키기 위한 커리큘럼 編成의 多樣化가 要求되고 있는 실정이다. 事實上 外國語 습득에 있어서 重要視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外國語 履修時間數이다. 그러므로 知能 水準과는 별 관계없이 相當한 時間數가 要求되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마치 스포츠에 대한 연습이나 트레이닝과 같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外國語 습득에 대한 時間量에 대해서 日本의 外國語擔當敎授들은 不滿을 表示하고 있으며 아울러 個別進度學習에 의한 敎育프로그램 製作 등을 포함하여 目的에 따른 敎育課程의 多樣化는 불가피한 問題點으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日本의 國立大學에 연저한 현상이지만, 아무리 L.L敎室의 수를 증가시키고 最新式 시청각 기재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器材의 授業 實施를 위한 器材의 操作과 自體敎材製作의 技術面을 지원 하는 人員이 充分하고, 또한 적절히 배치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效率性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共通된 觀點이다. 東京大學 敎養學部의 言語文化센터의 현황을 보면 1982년 4월 현재 大小 합하여 네 개의 L.L敎室과 120㎡스타지오등에 대해서 技官 1명과 事務員은 1명도 없는 實態를 筆者 自身이 직접 목격한 바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科學的인 外國語 敎育의 成果를 기할 수 없다는 것이 東京大學 敎養學部 佛語담당敎수인 加藤晴久氏의 의견이었다.⁸⁾

7) Pierre M. Groll: Réflexion sur L'enseignement du Français au Japon
日本フランス語敎授連合機關誌「フランス語敎育」第6號, 1977.

8) 加藤晴久, 日本の大學改革, 青木書店, 1982, 10., pp. 170-1.

네째, 日本의 大學에 있어서 教養外國語教育이 非常勤敎員(講師)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⁹⁾을 改革하지 않은 한 外國語教育의 改革에 불가피한 敎員人事組織과 責任體制의 明確化는 전혀 不可能하다는 것이 日本 外國語學界의 一般의인 輿論이다. 요컨데 日本 社會에서 敎授의 資質과 能力, 그리고 意識을 過大 評價하는 경향이 엇보이며, 그 處方策으로서 海外研修를 통해 外國語擔當敎授의 再敎育論을 力說하면서 大學敎授의 充員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을 내세우는 爲政者의 決斷만으로 外國語 敎育이 一變하는 現時點에서는 日本의 外國語 敎育의 改革은 아직도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남아 있다.

VI. 東京大學 教養學部の 第二外國語(불어중심) 敎育의 現況

東京大學 教養學部課程은 前期課程 및 後期課程으로 나누어 履修年限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1) 前期課程에 있어서는 一般敎育科目과 外國語科目 및 保健體育科目을 履修케 하고 있으며, 後期課程에 있어서는 專門敎育科目을 履修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教養學部の 前期 2年間의 課程을 위해 開講되고 있는 外國語科目의 履修時數와 單位數의 一覽表는 다음과 같다.

分野	科目	對象科類	每週授業時數				單位	備考
			I學期	II學期	III學期	IV學期		
第一	英語	文	2	2	3	3	8~10	必修. 履修方法
		理	2	2	2	2	6~8	は p.18 ~ 20.
第二	ドイツ語	文	3	3	3	3	8~12	
		理	3	3	3	3	10~12	
	フランス語	文	3	3	3	3	8~12	
		理	3	3	3	3	10~12	
中國語	文	3	3	3	3	8~12	1カ國語必修	
第三	ロシア語	文	4	3	3	2	8~12	履修方法は p.18
		理	3	3	3	3	10~12	~ 20
第四	外國語	ドイツ語	(1	1	1	1)	1~4	
		フランス語	(1	1	1	1)	1~4	
		中國語	(1	1	1	1)	1~4	
		ロシア語	(1	1	1	1)	1~4	
		스페인어	(1	1	1	1)	1~4	履修方法は p.20.
		이탈리아어	(1	1	1	1)	1~4	
		영어	(1	1	1	1)	1~4	
第五	朝鮮語	フランス語	(1	1	1	1)	1~4	
		朝鮮語	(1	1	1	1)	1~4	

- a) 外國語科目 및 演習에 대해서는 주 1시간 수업에 1學期를 履修하면 1單位가 주어진다.
- b) 實驗 및 實習에서는 週 2시간 수업에 1學期를 이수하면 1單位가 주어진다.
- c) 1시간 수업을 90分 單位로 定하고 있다.

2) 外國語科目의 履修規定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第1外國語 및 第1外國語(文科生은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중 一個國語)를 履修토록 하고 있다. 또한 第3外國語는 독어,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한국어의 강의가 설강되고 있다. 희망자는 自身이 제2외국어를 이수하고 있는 外國語 以外の 外國語를 自由로 선택할 수 있다. 강의는 초급 수준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제3외국어는 各 專攻課程의 要望科目으로 履修시키고 있다.

b) 各科類는 이수하는 제2외국어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履修班을 분리시키고 있다. 붙어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 불어 未修班(初級 佛語에 해당됨)

B : 불어 既修班(中級 佛語에 해당됨)

등으로 分類시켜 이수토록 권장하고 있다.

3) 제2외국어(불어)의 講義 內容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1.

擔當教官名 題 目	講 義 內 容	對象科類	對象學年	テキスト・その
各 教 官 프랑스語 既修클래스	フランス語既修とは、初級文法をマスターした程度の語學力を言うが、入學以前の經驗の差が大きいため、教科は擔當教官の判斷によって決める、原則として、中級の讀本を用いる。	文・理	1	
各 教 官 프랑스語 未修클래스A	フランス語の文法の基礎を學習することにより、フランス語の基本を身につけるようにする。文法の教科書が終わったあとでは、易しい讀本を用いる。原則として、週2回、同一の教官が擔當するものとする。	文・理	1	
各 教 官 프랑스語 未修클래스B	フランス語の基本文法の學習を補う讀本の學習と、動詞の活用の訓練を行う	文・理	1	
各 教 官 프랑스語	フランス語の中級の讀本を用いた講讀が主であるが、具體的な教材については、各教官の判斷によって、變化がある。	文・理	2	

9) 불어과목에 한해서言及하면 四年制 國公私로 大學에 非常勤教員에 대한 의존률은 52.3%, 근무교를 갖지 못한 순수한 非常勤教員에 대한 의존률은 34%의 통계가 나와 있다.

日本フランス語 프랑스文學會「フランス語教育に関する調査集計報告書 1981年度」1981年編.

10) 東京大學 教養學部 便覽Ⅰ(前期課程): 昭和 57年 4月, p. 52.

11) 東京大學 教養學部 科目 紹介: 東京大學, 昭和57年, p. 38.

上記한 바와 같이 東京大學 敎養學部에서 시행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側面에서, 우리나라 大學 제2외국어(불어) 敎育의 實態와는 比較할 수 없는 두드러진 차이점을 고찰해 볼 수가 있다.

첫째, 제2외국어를 이수하기 위한 時數가 우리의 경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물론 교양학부 과정이 2년간이라는 이수년한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2年 동안에 이수하는 제2외국어 시수는 1학기를 3개월(4,5,6)로 잡고 每週 3시간(1시간90분강의)에 평균 12週의 강의를 실시한다면 1학기 평균 36시간, 즉 90분×36시간=3,240시간이 된다. 또한 2학기를 6개월(9,10,11,1,2,3)로 잡고 강의를 한다면 2학기 평균 72시간, 1시간, 즉 90분×72시간=6,480시간으로 一年間에 이수하는 제2외국어 시수는 180시간이 된다. 더구나 1시간 90분 강의를 고려한다면 엄청난 시간을 제2외국어 이수에 할애하고 있는 實態를 고찰해 볼 수가 있다.

둘째, 영어와 같은 사실상의 제1외국어 뿐만 아니라 여타의 제2외국어가 교양, 일반 과정으로서 많은 需要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숫자까지 충당해낼 수가 있는가 하는 大學敎員의 人力資源이 문제시되고 있는 점은 日本의 大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東京大學 敎養學部에서 제2외국어(불어)를 擔當하고 있는 敎員數는 다음과 같다.

- 1) 敎授: 8名
- 2) 助敎授: 10名
- 3) 非常勤講師: 20名
- 4) 프랑스敎授: 4名
- 5) 助手: 2名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¹²⁾ 우리나라인 경우 佛語佛文學科에 敎員數(專任講師以上)는 대체로 10名 內外로 構成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의 처지와는 크게 다른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외국어 교실에 수용되는 학생수는 最大 50名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平均 20名 單位를 適正 水準으로 묶어서 수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는 筆者가 '83년도 渡佛時 研修한 소르본대학의 어학강좌 교실에서도 20名 單位를 適正 水準으로 삼고 있는 것과 同一한 현상이다.

넷째, 日本의 大學敎養佛語의 敎授方法을 살펴보면, 文法, 讀解力 및 會話를 중심으로 한 各分野의 수업을 敎授 3명이 분담하고 있으며, 회화력 양성을 위해서는 물론 프랑스인 敎授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敎材 역시 文法, 讀解力, 會話 敎材를 各各 別途로 채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東京大學 敎養學部の 제2외국어(불어) 敎育의 현황을 대충 네 가지 側面에서 고찰해 보았다. 물론 우리나라 大學의 제2외국어(불어) 敎育의 실태와는 꽤 다른 問題點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東京大學 敎養學部の 外國語敎育의 方向이 言語와 文化 어느 한 分野에 치우치는 외국어 敎育방법을 탈피하여 두 分野를 適切하게 調和시킬 수 있는 외국어 敎育의 多角적인 效率性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고찰해 볼 수가 있다.

12) 東京大學 敎養學部 便覽 I(前期課程): 東京大學, 昭和57年, pp. 91-2, pp. 102-6.

Ⅶ. 筑波大學 외국어센터의 活動現況

筑波大學은 변동하는 현대사회에 부단히 대응함은 물론 國際性을 풍부히 하여 다양성과 유연성을 가진 전혀 새로운 연구·교육의 기능과 운영의 조직을 개발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 大學은 타대학에서 보기 드문 새롭고 특색있는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선 눈에 띄이는 것은, 전공과목은 물론 공통의 교양과목도 다양하고 풍부하게 커리큘럼을 준비하여 어떤 분야의 학생이라도 손쉽게 이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문의 종합성이 대학교육에 반영하도록 배려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각자의 전공분야에 대해서 깊은 연구도 가능함은 물론 폭넓은 종합적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그들의 뜻을 이룩할 수 있다. 이 大學이 국제적으로도 개방된 대학이며 국제간 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은 특히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대학은 여러가지 教育工學的手法을 적극 도입함과 동시에 能力檢定制를 가미함으로써 실제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어센터에는 최신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이 大學의 外國語教育센터의 活動現況을 몇가지 側面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教育活動現況

a) 1學年 全學生 1,600名을 對象으로 一般語學으로서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의 科目을 開設하고 實用 能力의 양성을 目的으로 한 授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小規模的이나 2學年 以上の 學生을 대상으로 外國語의 自由選擇科目(選擇外國語)을 開設하고 있다.

b) 檢定試驗의 實施

全學年 學生을 對象으로 第1學年 修了時 영어 실력 檢定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實用 英語의 單位認定을 행하고 있다.

c) 公開講座의 實施

每年 여름에 一般人을 對象으로 外國語教室과 現職의 中·高校敎員을 대상으로 외국어강좌를 개강하고 있다.

2) 研究活動現況

a) 檢定制도의 研究開發

이미 실시되고 있는 檢定시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작성 방법, 실시 방법 및 효과의 側定 方法 등을 研究하고 있다.

13)
(昭和56年度)

	授業科目名	開設授業数	敎官数	受講學生数 (延人数)
一般語學	英語	222	33	5,265
	ドイツ語	81	24	3,703
	フランス語	33	15	1,470
	中国語	12	6	387
	ロシア語	12	4	129
	スペイン語	3	2	79
	朝鮮語	3	2	40
選擇外國語	ドイツ語	3	3	33
	中国語	2	2	10

13) 筑波大學 外國語센터概要: 筑波大學, 1982, p. 4.

b) 教育機材利用의 研究開發

教育機材의 有效한 利用法의 研究와 거기에 사용되는 教材의 開發을 도모하고 있다.

c) 外國語教育 研究會

外國語教育學 樹立을 위해서 言語學을 위시하여 관련된 諸科學을 응용하고 教材의 편집방법, 교수법, 교육과정 등의 조사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定期的으로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고 외국어 교육논집을 刊行하고 있다.

3) 테이프 教材現況

全學年의 학생 및 교직원이 시청각 教材와 기재를 利用할 수 있으며 自主的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테이프 教材를 설치하고 運營하고 있다.

1) 所藏教材

a) 테이프 영 어	484組	
독 어	134	
불 어	149	
중 국 어	88	
러시아어	88	
스페인어	31	
한 국 어	14	
諸 國 語	76	
b) VTR 영 어	70本	
독 어	5	
불 어	17	
중 국 어	44	
러시아어	55	
스페인어	21	14)

其他 時事英語 NHK라디어講座(영어, 독어, 불어 등)의 民族音樂 등의 教材가 있다.

4) 施設現況

外國語센터의 시설 現況은 日本 文部省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世界的인 水準에 도달하고 있다. 시설 現況을 살펴보면, ②LL教室, ②LL小教室, ③講義室, ④錄音室, ⑤編輯室, ⑥學術情報 處理센터는 各 學群과 대학원의 연구과에 설치된 단말장치(TSS)와 연결되어 있어 교육과 연구를 위한 컴퓨터의 이용은 매우 편리하다.¹⁵⁾

이와 같이 엄청난 규모의 외국어센터는 運營委員會에 의해서 철저하게 管理되고 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①學長, ②評議會, ③教育審議會, ④센터敎員會議 등으로 構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이 대학의 외국어센터는 全學生을 對象으로 實用能力을 重視한 外國語 教育을 實施함과 同時

14) Ibid., p. 8.

15) Ibid., p. 10.

에 外國語 教育에 관한 調査 및 研究를 目的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서 教育的인 側面에서는 教育 課程을 企劃하고 시청각교육기재를 活用한 수업을 행하며 또한 實力檢定試驗을 실시하고 아울러 교재와 시설을 제공하여 學生의 自習活動을 촉진시키고 있다. 한편 研究的인 側面에서는 교재의 編成法, 教育機材의 利用法, 教授法, 實力檢定法 등의 改善과 開發을 試圖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어 교육과 연구의 兩機能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신, 최고, 최대의 설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이 또한 특색이다. 한 마디로 이 대학은 타대학에서 일찌기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大學改革의 構想을 實現한 대학이라고 보아 타당할 것이다.

VIII. 結 論

日本の 大學教養第2外國語(佛語의 側面)의 實態調査와 考察을 통해서 볼 때, 한국의 大學教養第2外國語教育의 實態와는 다른 면모와 樣相을 여러가지 側面에서 보여주고 있다. 日本의 大學教養外國語(제1,2포함)인 경우는 종래의 강독중심의 외국어교육 및 방법을 지향하여 변천하는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도록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外國語 活用能力을 培養시키는 커리큘럼 편성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어를 습득시킴과 동시에 급격히 발전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산업 등 국제적 교류가 빈번한 시대적 조류에 적응할 수 있는 외국어 구사능력을 育成시키고 있다. 그런데 現行 어학교육의 大量化에 따른 교원, 교실 기타 시간표 작성의 어려움이나 適正 水準을 넘는 收容人員으로 해서 강의의 不實化가 초래되고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외국어 교육의 質的 低下를 가져오는 고질적 요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本論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日本의 大學教養佛語의 實態는 아직도 未及한 現實的인 條件을 안고 있어 외국어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책과 改革動向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간추려서 고찰해 볼 수 있다.

1) 예산부족을 앞세워 많은 外來講師를 초빙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장애 요인으로 지적해 낼 수 있다.

2) 외국어센터를 운용 관리하는 시청각 기재의 專門家가 不足하다는 點이다. 이러한 현상은 훌륭한 시설과 더불어 최신시청각교육기재를 비치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活用하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3) 학습의욕이 있는 學生들의 能力을 伸長시키기 위한 커리큘럼 편성의 다양화가 문제점이 되고 있다. 즉 個別進度學習에 의한 教育프로그램 製作 등 교육과정의 多樣化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日本의 대학제2외국어(불어) 교육의 실태를 東京大學 教養學部를 中心으로 한국의 대학 제2외국어(불어) 교육과 비교해 言及하고자 한다.

첫째, 제2외국어가 교양, 일반 과정으로서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숫자의 人力資源이 문제시된다고 생각된다. 1983년도 東京大學 教養學部 佛語담당교원수는 ①교수: 8명, ②조교수: 10명, ③非常勤講師: 20명, ④프랑스人教授: 4명, ⑤助手: 2명이다. 물론 東京大學 教養學部는 修業年限이 2년이어서 다수의 전임교원을 채용하고 있고, 그에 못지않게 전임교원

의 부족을 충당하는 外來講師도 다수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大學의 佛語佛文學科의 전임교수 및 시간강사의 현황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심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식별할 수 있다.

둘째, 日本의 大學教養제2외국어교실의 실태를 보면 학생수의 適定水準이 20名單位이며 最大限 50名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現行 한국의 大學實情을 보면 教養課程으로서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語學教室의 適正水準을 一定하게 규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東京大學 教養學部 佛語科目 履修現況을 살펴보면 주당 3시간(1시간90분)을 2년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년간 프랑스어학을 습득시키고, 프랑스의 文化를 폭넓게 理解시키며, 自國의 文化와 프랑스文化 및 民族性의 本質을 고찰케 하고, 그 인식을 深化시키는 外國語 教育의 多樣性과 效率性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韓國의 大學 교양제2외국어의 이수과정은 一部大學을 제외하면 一年間 주당 2시간 내지 3시간을 이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한 학기(주당 3시간)에 끝마치는 계열학과도 있는 실태이다. 제2외국어인 경우 절대 시간수의 부족으로 연제나 初級課程에서 끝나고 마는 것과 동시에, 더 배우고자 하는 2,3,4학년 학생을 위한 中, 上級반의 연계가 커리큘럼이나 시간표 배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배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제도와 활용의 두가지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大學교양 제2외국어 담당교수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方案으로서 短期 또는 長期別로 區分하여 海外研修를 國費로 장려하는 시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日本의 大學當局은 외국어 담당교수(영어 및 기타 외국어)들에게 國費로 海外研修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인 경우는 막대한 소요예산 관계로 당장 그 實現化가 어렵겠으나 점진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專攻에 대한 研究는 물론 外國의 大學教育의 實態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변천하는 사회 및 현실적인 요청은 해가 갈수록 實用性을 강조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科學的인 연구에 입각한 외국어센터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본다. 筑波大學 외국어센터 및 東京大學 教養學部 言語文化센터의 設立目標과 方向은 바로 그것을 立證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一部大學을 제외한 其他 大學은 뚜렷하고 內容있는 외국어센터가 거의 全無한 실정이다. 이와같은 외국어센터의 設立은 多角的인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大學敎員 및 學生 뿐만 아니라 中·高等學校 外國語 담당교사 및 社會人까지도 自由롭게 活用할 수 있는 方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本稿는 개괄 자체를 廣義로 해석하여 접근하였기 때문에 실태조사 및 고찰을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하고 問題의 提起에 그쳤다. 앞으로 理論的인 側面에서는 물론 實證的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大學教養佛語의 實態와 日本을 위시한 其他 外國의 大學教養佛語의 實態 및 問題點을 深層分析하여 그 對策과 改善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Résumé

Réflexion sur l'état réel du Français dans les Universités Japonaises

Ko Won-hee

L'enseignement du Français dans les universités Japonaises se libère de l'enseignement et de la méthode de langue étrangère traditionnelle.

Désormais, les autorités de l'université au Japon pratiquent un enseignement orienté sur un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vivante, pratique, conformément à l'attente de société changeante.

En conséquence, les étudiants apprenant les langues étrangères s'habituent au langage parlé et ils peuvent s'adapter à la tendance de leur temps.

Alors, j'ai considéré l'état réel du Français dans les universités Japonaises dans les points suivants :

- 1) problèmes concernant les ressources humaines (professeur de Français)
- 2) problèmes concernant le nombre des étudiants dans les salles de classe de Français
- 3) problèmes concernant les heures de Français
- 4) problèmes concernant les stages à l'étranger pour les professeurs de Français
- 5) L'état actuel du centre de langue étrangère des universités de Tsukuba et de Tokyo au Japon

Je désire qu'on puisse réaliser une étude sur l'état réel et les problèmes du Français à l'université, non seulement sur le plan théorique, mais aussi sur le plan pratique.